KFA 식량과 비료 -2022년 3월호-

식량과 비료

2022년 3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 · ㈜조비 · ㈜카프로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1 회원사 동정

❑ ㈜조비

○ '땅조아', '뉴트리세이브'로 고추 재배 질소이용률 높이고 뿌리 활력

- 완효성 · 기능성 비료로 노동력절감 · 저탄소농업 실현 가능
- 부식산+토양근권미생물로 뿌리발육촉진 · 토양 개량

고추는 재배기간이 길고 높은 노동력을 요구하는데다가 비료 사용량까지 많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조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땅조아와 뉴트리세이브 처리를 추천했다. 땅조아와 뉴트리세이브는 비료사용량과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경작지 질소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상 기후에 강해 고품질 고추를 재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추재배에 최적화 비료! 완효성·기능성 비료 땅조아

땅조아 비료는 질산태질소, 완효성, 칼슘, 마그네슘, 황산칼륨, 유황이 들어간 고추 재배에 적합한 제품이다. 속효성 질산태 질소가 초기에 용출되어 작물뿌리의 조기 활착을 유도하고, 완효성 질소를 함유해 비료 지속기간이 길어 질소이용률을 높여 주어 비료사용량 및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비료이다.

땅조아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경우, 100% 수용성이면서 지효성 또한 보유하고 있어 칼슘결핍 현상을 경감시키고 뿌리 발육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엽록소 구성성분인 마그네슘, 뿌리와 줄기를 강하게 해주는 황산칼륨, 생리장애 예방 및 내병(충)성에 강한 유황 등 땅조아 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성분들은 고추재배에 가장 알맞은 것은 물론이고 저탄소농업 실현, 생력화 비료로서 역할을 다한다.

부식산과 미생물효과로 이상기후에 강한 뉴트리세이브

뉴트리세이브에는 부식질이 90% 이상 함유되어 있어 토양구조를 좋게 만들고, 부식산과 미생물의 작용으로 토양 입단화와 토양 중 염류와 유해성분을 분해하고 뿌리의 생육을 향상시킨다. 또한 밭 장만 시 유기질비료 또는 밑비료와 같이 사용하면, 토양 내 유기물 분해촉진 및 비료 흡수율을 도와 건강한 뿌리 생육이 가능해진다.

지력이 향상되고 뿌리가 건강해지면 이상기후가 발생해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 고추를 재배

할 수 있다.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품인 뉴트리세이브는 유기농, 무농약 재배,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농업 실현에 적합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 2022. 3. 2.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풍농

○ 작물에 흡수 빠른 기능성 양분함유 관주 · 엽면시비용, 신제품 "엔피코 무레타플러스,무레타비료"

- 초기 뿌리활착, 왕성한 생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다수확

전 생육기용
14-10-10+2+0.3,유황15

생육 중, 후기용
16-0-(15)+0.3,황산칼륨 함유

스마트팜과 고품질 시설재배 농가를 위한 엔피코 "**무레타플러스(14-10-10+2+0.3,유황15)**" "**무레타(16-0-15+0.3)**" 출시로 농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엔피코 무레타플러스와 무레타비료는 속효성 질산태질소와 질산칼륨 양분 및 미량요소, 유황 등 기능성 양분 함유로 작물의 양분흡수가 빠르고 초기 뿌리활착 등 생육향상에 효과적이며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한 가성비 높은 관주·엽면시비용 제품입니다.

특히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무레타플러스는 물에 잘 녹는 완전 수용성으로 원예, 과수 등 모든 작물에 효과적인 흡수형태 양분으로 빠르게 작물이 이용가능한 기능성 비료입니다. 정식후부터 사용으로 뿌리발육이 왕성하며, 작물생육 향상과 양분관리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양·수분 관리가 필요한 시설재배지 등에서 적기에 빠르게 양분을 흡수시켜 빠른 처방이 필요한 원예, 과수류 등의 양분결핍증 해소와 생리병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생육초기부터 무레타플러스를 관주, 관비 사용할 경우 농산물의 맛, 당도, 때깔, 저장성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육 중, 후기용 무레타비료는 질산태질소, 황산칼륨, 미량요소 붕소를 함유하여 균형잡힌 양분공급으로 생육 중, 후기 과실 비대, 생육 및 상품성 향상에 적합합니다.

이번 출시된 관주·엽면시비용 기능성제품은 시설재배 및 관주, 관비용 점적관수 등 특수재배지 농업인의 호평과 함께 문의 및 관심이 높아 금년도 판매확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풍농 자료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러, 우 사태 관련 비료 원자재 수급 대책 회의 참석(농식품부)

❑ 최근 국제분쟁 및 비료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보도자료 배포(2회)

❑ 무기질비료 원자재 및 국내 비료 공급 상황 관련 수시 보고 및 협의 대처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28일부터 원예용비료 구입비 지원‥1월 이후 구매 비료도 소급 적용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원예용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원예용 무기질비료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 3일 이후 원예용 비료를 구매했다면 지역농협에서 소급해 가격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비룟값이 크게 오르자,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반용 무기질비료 72만 톤, 원예용 무기질비료 31만 톤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료 사용을 막기 위해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년 동안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농지매입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늘었거나, 작목 전환으로 비료 사용량이 늘어났을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비룟값 지원 물량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3. 16. KBS뉴스 기사내용 인용

❑ 무기질비료 원자재 상반기 수급 차질 없어

- 상반기 소요량 요소 88%, 염화칼륨 100%, 인산이암모늄 104% 기확보
- 정부 보조사업 도입 및 원료구입자금 대폭 지원 등 효과 매우 커

최근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올해 국내 비료공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전체 비료 사용량의 70%가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비료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비료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상반기 사용할 주요 원자재 대비 요소는 88.4%, 염화칼륨 99.6%,

인산이암모늄 104.4%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러시아•벨라루스의 경제제재로 인한 염화칼륨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라오스•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 등을 통한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국제원자재 수급과 가격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원료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요소의 경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염화칼륨도 라오스산 등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요 원자재 공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연간 계약된 원료에 대해서 우선 체결과 함께 도입 시점을 앞당겨 원자재 재고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며, 선 발주 등을 통한 구매결정을 조기 시행해 원료가 필요한 시점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요 비료원자재 국제가격은 지난 3월 10일 기준 요소가 전년 연말대비 46%, 암모니아는 58%, 인산이암모늄은 48%, 염화칼륨 74%의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생산업계가 비료원자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비료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일시 시행했던 무기질비료 보조사업 도입, 원료구입자금 지원한도 대폭 확대(2,000 → 6,000억원) 및 무이자 혜택, 요소 할당관세 무세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비료업계에 숨통을 완화시켜 주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도 크게 효과를 보이고 있다.

무기질비료 주 수요처인 농협에서도 올해부터 원자재 수급 안정화로 무기질비료 적기 생산과 공급 및 원자재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원가 산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상시 계약단가 조정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2022. 3. 17.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비료업계, 러 · 우 사태 원자재 수급 안정 최선 다해

- 주 수입비종인 염화칼륨 가격 전년 대비 약 60% 상승

지난해 초부터 무역분쟁, 비료수요 증가,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고 가격도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기질비료 수급과 가격이 한층 불안해지고 특히,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염화칼륨은 전년 3월 대비(3.3일 기준) 146%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비료업계로서는 국제원자재 수급과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고 환율도 올라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비료원자재인 요소는 전년 연말대비 21%, 암모니아는 56%, 인산이암모늄은 48%, 염화칼륨 63%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1년 기준 전체 염화칼륨 소요량(77만톤)의 30%인 23만톤을 벨라루스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캐나다 64%인 49만톤, 이스라엘 5%인 4만톤을 2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 염화칼륨 수급은 상반기 소요량(약 15만톤)을 기존 재고 및 계약 등을 합해 거의 전량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 비료생산업체들이 수입선 다변화와 공동구매 등 원자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업계에서는 농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차액의 80%를 정부 등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어 농가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줄인바 있다. 또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주 수요처인 농협중앙회에서 오랜기간 제조원가를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누적 적자가 '16년 이후 2000여억원이 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농협은 올해부터 원자재 수급 안정화로 무기질비료 적기 생산과 공급 및 비료가격 현실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상시 계약단가 조정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로서는 그간 납품가격에 제조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영적자 누적 등으로 노후 시설 개선, 신기술 개발 등에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격조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제대로 정착돼 농가와 비료업계가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작물 생산에 필수자재인 무기질비료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면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후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적정량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2022. 3. 8.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 전국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요구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경남과 전남, 제주 등에서 잇달아 정부의 '생색내기·자화자찬용'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 정책을 비난함과 동시에 필수농자재 구매비용 인상에 따른 중장기적 지원 대책 등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전농은 "정부는 가격 인상분 지원 대책으로 농민들의 비료 구입 부담을 경감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격 안정에 이바지할 거란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원예·과수 농가에서 널리 활용하는 원예용 복합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작목전환 및 재배면적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수요량 및 농협 외 구매물량에 대한 대책도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료가격 때문에 농사 시기나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농산물 생산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올해 국민들이 맞이할 것은 '요소수 대란'이 아니라 '식량 대란'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숫자놀음을 그만두고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에 대한 온갖 문턱을 걷어내 농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비종과 모든 물량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농 부산경남연맹(의장 조병옥)에서도 지난 7일 "인건비와 난방비, 농약·비료가격 등은 죄다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사각지대에 내몰린 농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예용 3종 복합비료를 포함한 모든 비종에 대한 가격 인상분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보리와 밀, 양파·마늘 등 월동작물 재배가 한창인 전남과 제주에서도 거세게 울려 퍼졌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이갑성)은 지난 8일 "정부에

선 농민들의 사재기 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보조금 한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안정되면 비료를 사재기할 농민도 없다"라며 "정부는 사재기를 걱정하며 농민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원자재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이 물가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과 인건비, 비료·농약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추미숙) 또한 같은날 '농민들은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책임져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질 농산물 가격 탓에 밭을 갈아엎는 게 농민들의 일상이 돼가는데 정부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가격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부의 이번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는 농가에 그 부담을 20%나 떠넘긴 데다 일부 비종은 대상서 아예 제외시키기까지 했다"라며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 요소사태로 인한 무기질비료 인상분에 대한 전액 보조를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 2022. 3. 13. 한국농정 기사내용 인용

❑ 경기농기원, 작물 무기질비료 처방서 발급한다

- 공익직불제 시행 따른 기준설정

- 들깨·비름 등 소면적 5개 품목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무기질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농가를 위해 올해부터 들깨를 시작으로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 등 작물 5종의 비료사용 처방기준을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무기질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지난해 들깨 재배 50농가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을 조사해 비료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했다.

재배 농지마다 토양 성분이 다른 만큼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을 희망하는 곳은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5~10개 지점에서 작토심(0~15cm) 토양을 채취한 후 잘 혼합해 토양시료(1~2kg)를 봉투에 담아 이름, 날짜, 지번, 작물명 기재 후 가까운 농업기술 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각 농업기술센터는 받은 재배 농가의 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한다. 농가는 해당 처방서를 바탕으로 무기질비료를 정량 살포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2025년까지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

사용 처방기준 설정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면 무기질 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비료를 적정량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2. 2. 25.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우크라전으로 비료가격 사상최고..한달새 40% 폭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시상황으로 글로벌 식량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로 비료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은 비료가격을 추종하는 그린마켓 지수를 인용, 세계 비료가격이 전주보다 10% 급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제 비료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한 달 전보다는 40% 폭등했다.

비료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비료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비료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겨 국제 비료가격이 크게 뛰었다. 특히 요소와 칼륨 가격이 큰 영향을 받았다.

국제 해운회사들이 서방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 항로를 피하면서 국제 물류에도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러시아산 비료가 제때 수입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비료 수출을 줄이라고 국내 업체들에게 지시했다.

높은 비료 가격은 농업 생산을 감소시켜 글로벌 식량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최대 비료 수입국인 브라질은 올해는 이미 낮은 수확량을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막대한 양의 비료를 수입하는 브라질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등 비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2022. 3. 22. 파이낸셜뉴스 기사내용 인용

❑ 러, 반출금지 200여 종 상품목록 발표

- **한국 포함 비우호국엔 목재 제품 판매도 올해 말까지 금지**
- **비료·곡물·설탕·자동차 등도 수출 제한**

러시아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외 반출이 금지되는 200여 종 상품과 장비 목록을 확정해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보도문에서 "(반출 금지) 목록에 기술·통신·의료 장비, 운송 수단, 농기계, 전자기기 등을 포함해 200여 가지 상품이 포함됐다"면서 "여기엔 열차 차량과 기관차, 컨테이너, 터빈, 철 및 석재 가공용 선반, 모니터, 프로젝터 등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이날 일부 상품 반출 금지 조치와는 별도로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목재 제품 판매도 올해 말까지 금지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회원국 등 48개국을 포함했다.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외 시장으로 비료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22. 3. 11. 연합뉴스 기사내용 인용

❑ 올 들어 두번째 사료가격 인상 예고..농가도 업체도 괴롭다

사료업계에서는 원료 수급 불안과 물류비 상승, 불안한 국제 정세와 환율 인상이란 여러 악재가 겹치며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축산업계는 농가와 사료업계 모두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계속 인상되는 사룟값, 농가 버틸 재간 없다

A사, 3월부터 인상 예고, 지난해 두세 차례 인상 후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축산업계에 따르면 사료업체 A사가 최근 '사료가격 인상 안내' 공문을 각 지역 사업소와 농가 등에 알렸다. 3월 1일부터 kg당 양돈 54원, 축우 40원, 양계 3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두세 차례에 이어 올해 들어 1월 인상 이후 다시 사료 가격이 오르면 농가들은 1년 만에 최대 네다섯 차례나 사룟값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양돈을 보면 사룟값만으로 1년에 kg당 200원가량 인상된 것으로 사육 평균 농가가 사용하는 월 100톤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생산비용 상승을 불러온다.

 # 사료업계도 악재 겹쳐

원료 대부분 수입산 의존, 국제 곡물가격 치솟아 막막

사료업계에서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3월 인상을 예고한 A사 관계자는 "사룟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사료값은 그대로 둔 채 품질을 낮추면 이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 농가·사료업체 상생 방안 마련해야 "원료수입 지원 등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곡물 수입 단계에서의 일정 부분 지원 등 원자잿값을 낮춰주면 사료업체도 살고 농가 역시 도움을 받아 소비자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농가와 사료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 2. 25.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윤석열 당선인 농정공약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 등 그가 내건 농정공약에 농민의 눈길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현재 2조4000억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농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당선인은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농가 경영부담 완화 공약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고, 현재 최장 5개월인 계절근로자 근로 기간을 최장 9개월로 확대한다.

식량주권도 강화한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농지 투기를 예방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농촌뉴타운 조성을 통해 마련한 공공주택과 간척지 등의 대규모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배정한다.

※ 2022. 3. 10.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2021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 2021년 경지면적은 1,546,717ha로 2020년 1,564,797ha보다 18,080ha(-1.2%) 감소

▶ 논 면적은 780,440ha로 2020년 823,895ha보다 43,455ha(-5.3%) 감소

• 논 비율은 50.5%로 2020년 52.7%보다 2.2%p 감소

▶ 밭 면적은 766,277ha로 2020년 740,902ha보다 25,375ha(3.4%) 증가

• 밭 비율은 49.5%로 2020년 47.3%보다 2.2%p 증가

< 논밭별 경지면적 >

(단위: 천ha, %)

	2019	2020 (A)	2021 (B)	증감 (C=B-A)	증감률* (C/A)
경지면적	1,581	1,565	1,547	-18	-1.2
논	830	824	780	-44	-5.3
밭	751	741	766	25	3.4

※ 2022. 2. 25. 통계청 보도자료

❑ 2021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 2021년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4천006ha로 전년 540천697ha보다 3,309ha(0.6%) 증가

○ 2021년 남한 벼 재배면적(732천477ha)의 74.3% 수준

▶ 집중호우와 태풍이 없었고,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재배면적 소폭 증가

※ 2022. 2. 25. 통계청 보도자료

❑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회원사 : 남해화학㈜ · ㈜조비 · ㈜카프로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재정·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영('22~,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22~)

※ 2022. 3. 22. 환경부 보도자료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농업용 출하량)

(단위 : 톤)

구 분	'19년	'20년	'21년	'21년 1월말	'22년 1월말
단 비	185,086	188,275	175,124	14,876	27,156
- 요 소	155,090	152,476	135,483	12,414	24,063
- 용성인비 등 기타	29,996	35,799	39,641	2,462	3,093
복합 비료	853,473	837,024	870,459	43,843	43,759
- 일반복비	198,168	174,998	165,522	8,162	10,834
- 맞춤형비료	151,771	141,137	129,214	17,783	12,076
- 완 효 성	58,247	66,244	67,747	3,256	8,136
- 원예 기타	445,287	454,645	507,975	14,642	12,713
누 계	1,038,559	1,025,299	1,045,583	58,719	70,915

※ 협회 7개 회원사 출하량 기준(누계)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및 환율

(단위 : $/톤,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1년 2월말	'22년 2월말
요 소	313	289	445	356	817
D A P	380	326	552	409	958
염화칼륨	350	296	317	269	607
환 율 (매매기준율)	1,165.65	1,080.27	1,143.96	1,111.72	1,198.34

※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식량안보란

OECD는 식량안보를 모든 국민이 그리고 언제든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품을 영양적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의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또는 영양효율성, 안정성의 4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식량의 가용성은 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를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를 의미하며, 식량 접근성은 영양이 풍부한 식량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 혹은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이고, 식량 활용성은 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하며, 식량 안정성은 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의 획득 혹은 식량을 획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험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했다.

미국은 식량안보 영역을 개인·가계 자원까지 확대하고 매년 전국 가계조사를 통해 빈곤층에 푸드스템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상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국내 생산을 기본으로 수입과 비축을 조합한다. EU는 식량안보가 농정의 핵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사태를 경험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수준은 곡물자급률 최하위, 식생활의 서구화, 경지면적 지속 감소 등 식량안보가 불안한 상태이다.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 참고"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 남해화학㈜

○ 제품명 : 신세대측조
○ 성분량 : 22-7-7+3+0.2
○ 특성 및 효과
- 측조시비에 적합하도록 설계
- 완효성요소 함유로 효과가 지속적
- 고토와 붕소를 함유하여 미질을 향상

❑ ㈜조비

○ 제품명 : 미래로22
○ 성분량 : 22-6-7+1+0.1 (PCA, 완효성함유)
○ 특성 및 효과
- 측조시비가 가능하고 시비량이 적어 노동력 및 영농비용이 절감
- 작물의 뿌리 발생 및 발육을 좋게 하여 양분 흡수율을 높여 줌
- 양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켜 작물에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 주며, 비료 성분의 유실이 적고 비효가 오래 지속

❑ ㈜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팜한농

○ 제품명 : 한번에아리커
○ 성분량 : [21]-10-[11]+1+0.1 (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저온기에도 흡수력이 좋은 속효성의 질산태 질소와 비효가 오래가는 완효성 비료가 혼합되어 있음
- 작물의 초기 생육을 돕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추비를 생략할 수 있음
- 황산칼리, 고토, 붕소, 칼슘, 규산, 유황 함유로 작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줌

❑ ㈜풍농

○ 제품명 : 일회만290
○ 성분량 : 22-9-10, 고토1, 완효성비료
○ 특성 및 효과
- 밑거름 1회 시비만으로도 작물의 전 생육기간동안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완효성비료
- 고농도 완효성 복합비료로 시비량이 적어 시비 노력비를 줄여주며, 균일한 입자형태로 측조시비 등 기계시비가 편리
- 비료의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해주며, 양분의 과부족 발생없이 생육을 늘 건전하게함
- 3~4개월의 양분지속효과로 벼 생육 향상, 도복예방, 쌀 품질, 수확량증가에 효과적

❑ ㈜한국협화

○ 제품명 : 파워한번에OK
○ 성분량 : 22-6-9+1+0.1(코팅NK, 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비료, 우수코팅 질소, 칼리 함유
- 한번 시비로 이삭거름까지 지속(90일 영양분 지속)
- 측조시비가 가능하며, 벼 생육주기에 알맞게 영양공급

❑ ㈜ 세기

○ 제품명 : 원샷24
○ 성분량 : 24-8-8+2+0.2(측조시비 가능)
○ 특성 및 효과
-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성분이 함유된 고농도 복합비료
- 저인산비료로 이끼나 괴불 발생이 심한 토양에 효과적

※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KFA 한국비료협회

남해화학㈜ · ㈜조비 · ㈜카프로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회원사 : 남해화학㈜ · ㈜조비 · ㈜카프로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